

33. 예수님과 함께한 이지키엘 형제의 체험... 천국에 있는 궁전.

2007.01.07 – 전자책 ‘신부의 연대기’ – heartdwellers.org

오늘밤 주님께서는 평소와 같이 잠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자마자 저는 작은 강의 가장자리에 있는 모래위에 서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집트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독방을 따라서 파피루스 갈대가 있었고, 이집트 전통의상을 입은 몇몇 마을 사람들이 반대편 강가에서 그들의 그물을 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나무로 된 좌석 건너편에 바로크 양식으로 깔끔하게 만든 장대가 있는 길고 거친 나무 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배를 올려다보니 주님께서 배의 선두에 서서 밧줄을 감으며 그 배를 물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강으로 이끄는 것을 돕기 위해 다가갔고 그 물살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했을 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물은 놀랍게도 프리즘의 무지개색깔 같이 여러가지 빛깔로 반짝였습니다. 그 물은 놀랍도록 따뜻했지만 지구의 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은 부드럽고 상쾌한 느낌이었고, 그 물에서 나왔을 때는 질질 흐를 정도로 젖은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고 촉촉한 느낌이었습니다. 햇살이 좋은 날이었고, 백로가 물가를 따라 검은 발과 긴 다리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서 그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아주 능숙하게 얇은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잡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수중 식물의 연한 풀이었습니다.

저는 성경구절을 기억해요. ‘사자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는 죽거나 죽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제 마음에 다시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장대로 배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저희가 이 강의 중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마리의 하마가 바로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에 경외심을 느꼈어요.

가까이에 있는 하마새끼는 그 부모와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며 저희가 지나갈 때 머리를 위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이 하마들과 함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흥분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장대를 무릎위에 잠시 올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놀라게하는것을 그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시선을 바라보면서 말하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저의 마음은 저의 가슴 속에서 크게 뛰기 시작하고, 모든 하늘과 땅이 그것을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모든 존재가 주님을 향한 가장 사랑스러운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단지 지금 바로 주님의 품에 저를 내던지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기울이면서 주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워, 워 나의 신부야! 너는 이 강의 한가운데서 이 배를 뒤집어지게 만들거야! 그게 너가 원하는 거야?”

저는 망설임없이 소리질렀어요. “네!” 제가 예수님께 달려가자마자 배가 바로 뒤집혔어요. 저희는 두명의 어린 아이들처럼 웃고 구르며 이 천상의 물에 잠기고 서로의 품에 안겨서 기뻐하었어요. 이곳의 강은 수심이 얕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처럼 모래바닥에 섰고, 저희는 동시에 앞으로 몸을 던져서 팔과 손을 뻗어 물에 떠있는 배를 잡았어요.

예수님은 재빨리 먼저 헤엄쳐가셔서 밧줄을 잡으셨고, 저는 배에 다시 오르기 위해 제 때에 배의 옆을 잡았어요. 주님께서 제가 배에 오르도록 도와주신 후, 주님도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자리에 다시 앉으셨어요.

“그것은 상당한 포옹이었어!”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얼굴에서 반짝이는 물을 털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알아요. 다시한번 더 해요!” 저는 웃었어요. 주님은 배를 다시 뒤집으려는 척을하시다가 배의 옆을 잡아 안정시키시면서 활짝 웃으셨어요. 저희는 여전히 그 장난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저는 다른 세상의 기쁨으로 깊은 한 숨을 쉬었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제가 진정으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저는 주님의 심장에서 퍼져나와 저의 심장으로 들어오는 주님의 심장박동에 더욱더 사로잡혀 있었어요.

주님께서 기대로 가득차있다는 것을 느끼고, 저에게 무슨일이 일어날지를 알기에, 저는 어느정도 제 자신으로 돌아갔고, 배를 밀기위해 그 견고한 장대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랑의 바람에 완전히 떠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높이 앉으셔서 저희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돛을 세우실 때 매우 위엄있어보이셨어요. 저희가 코너를 약간 돌았을 때, 저 멀리 강 위에 세워져 있는 대나무 선착장을 보았어요. 저희는 아직 조금 상류에 있었지만 주님은 더 힘차게 밀고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의 열정이 저를 더 큰 결심으로 밀어주셨고, 저희가 저희의 항해의 이유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저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거의 도착할 때쯤 사방에서 사람들이 해변을 따라 달려나와 그들의 손을 흔들며 즐거운 축하로 저희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선착장에 다다르니 저는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제가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강에서부터 이어지는 넓은 계단을 따라 높이 솟은 곳은 제가 본 곳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2명의 왕실 근위병들이 서로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었고, 위쪽으로 이어지는 대리석 계단을 따라 서있었어요.

제가 이러한 행사에 적절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금 부끄러워하며 제 옷을 바라보았는데 완전히 달라진 저의 모습에 놀랐어요. 저희는 더이상 험클어지고 지저분해보이지 않았고, 둘 다 가장 장엄한 결혼예복으로 매우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저희는 하선하여 선착장에서 왕실 근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 저는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곳에 거대한 야외 진입로가 있었어요. 커다란 곡선 입구를 지나가면 둥근 벽들이 거대한 원형 홀을 이루는 왕실의 홀이 있었어요. 높은 발코니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는 양치류, 담쟁이 덩굴 및 기타 무성한 풀로 덮인 벽을 따라 내려가는 천연폭포였어요.

전체의 장소가 하나의 큰 실내 정글로 변형되어있었어요. 큰 부리새와 마코 앵무새는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내려와서 모든 종류의 이국적인 다른 새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가끔 카멜레온은 자신이 드러나도록 하였고, 작은 여우원숭이 무리는 덩굴에서 서로를 부르며 왕과 그의 신부가 도착했음을 알렸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제 팔을 잡으시고 주님의 왼쪽편에 있는 넓고 하얀 계단으로 저의 주의를 이끄셨어요. 저희는 꼭대기의 발코니에 도착할때까지 향기로운 공기에 실려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저의 손을 잡고 저를 앞으로 이끄실때 저는 깃털처럼 가벼움을 느꼈어요. 이제 저희는 응접실의 로비로 들어가는 커튼 앞에 다다랐어요.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저는 유칼립투스 나무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어요.

한쪽엔는 고급 실크배게가 있는 고급스러운 소파가 있었고, 다른쪽에는 큰 책상과 옷장이 있었어요. 티크 나무로 만든 동양적인 의자들이 방에 놓여있었고, 넓은 야외 베란다로 통하는 이중 출입구에는 부드러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희는 그 출입구를 통해 나가서 작은 흰색 테이블이 있는 곳에 앉았어요. 저희 앞에 아주 멋진 브런치가 준비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도착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였어요.

달콤한 빵과 계란, 샐러드와 차 그리고 멜론과 구아바는 많은 맛있는 다과들 중 일부였어요. 또한 요거트와 곡물, 신선한 크림과 유유들도 난초, 목련, 향기로운 치자나무와 자스민 꽃으로 장식되어 올려져 있었어요. 이 영광스러운 환영 연회처럼 완벽한 것은 없을 것이고, 제가 나누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결혼의 기쁨에 황홀하게 빠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